

# 經濟週評

세계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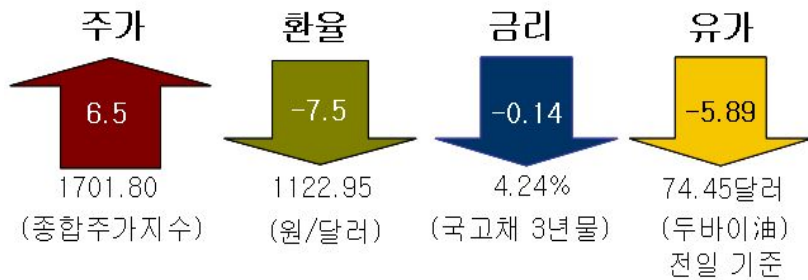
10-02(통권 382호)  
2010.01.15



- 사전적 워킹푸어 대책 시급하다  
- 일본 워킹푸어 현황과 시사점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08~1.15)

Better than  
the Best!



차 례

- 주요 경제 현안 ..... 1
  - 사전적 워킹푸어 대책 시급하다
    - 일본 워킹푸어 현황과 시사점 ..... 1
- 주요 국내 외 경제지표 ..... 10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 경제연구본부   : 현 석 원 연구 위원 (3669-4024, kyotohyun@hri.co.kr)  
                       : 정 유 훈 선임 연구원 (3669-4014, youhun@hri.co.kr)

## Executive Summary

### □ 사전적 워킹푸어 대책 시급하다 - 일본 워킹푸어 현황과 시사점

**(일본 워킹푸어 정의와 현황)** 워킹푸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생활보호 수준 정도의 수입으로 경제 생활에 곤란을 겪는 자를 의미한다. 현재 일본의 경우, 3인 표준세대의 생활보호비 기준인 연간 소득 200만 엔 미만인 임금 근로자로 정의할 경우, 2008년 전체 임금 근로자 중 26.2%가 워킹푸어로 나타난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자영업자 및 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전체 취업자 5,524만명 중 1,447만명이 워킹푸어인 것으로 추정된다.

**(워킹푸어 증가의 배경)** 첫째, 경기 침체에 따른 정규직의 축소이다. 일본 경기 침체로 정규직 근로자는 2000년 4월 대비 2009년 11월 3,190만 명까지 약 300만 명 가량 감소하였다. 둘째, 비정규직의 급증이다. 경비 절감과 고용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비율은 2009년 3/4분기 현재 34.1%로 취업자 3명 당 1명이 비정규직이다. 셋째, 기업들의 전반적인 임금 비용 축소이다. 1998년 이후 일본에서는 임금 하락이 본격화되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임금이 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국내 고용의 해외 유출이다. 일본의 해외 직접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가 축소하였다. 일본의 해외 직접투자의 경우, 2004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면서 2000년 315억 달러에서 2006년 502억 달러, 2007년 735억 달러에서 2008년에는 1,308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일본의 워킹푸어 대책)** 최근 일본은 늘어나는 워킹푸어에 대한 대책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대책과 빈곤 가계 대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우선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대책으로 2009년 7월 고용대책에서 직업 훈련, 훈련 효과 제고, 중소기업 고용 창출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직업훈련을 위해서는 신성장분야에 대한 기본능력 습득을 위한 장기 훈련과 IT 기술 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직업 훈련을 집중할 수 있도록 훈련 기간 동안, 기초적인 생활 보장을 개인에게 지원해 주고 있다. 셋째, 중소기업 고용 창출을 위해서 현장실습 또는 직장체험이 끝난 훈련생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일인당 10만엔씩 지원하고 있다. 다음으로 빈곤 가계 대책을 위해서는 소득 보전과 주택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첫째, 소득보전을 위해서는 2009년 한시적 조치로 고용보험료율을 1.2%에서 0.8%로 0.4%p 인하하였다. 둘째, 빈곤가계를 위해서 주택, 채무, 건강 상담 등을 한 곳에서 '원스톱 서비스'로 받을 수 있도록 헬로워크의 기능을 한층 강화하였다.

**(시사점과 대응과제)**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워킹푸어가 급증하고 있다. 2008년 기준 근로자 중 워킹푸어의 비율은 11.6%(약 273만명)로 일본에 비해 낮지만, 2006년, 2007년에 비해서는 높아지는 추세이다. 따라서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근로소득세액공제 확충 등의 사회 안전망 구축, 국가고용전략회의 내 '워킹푸어 대책반' 설치 등을 통해 근로빈곤층인 워킹푸어 증가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 < 사전적 워킹푸어 대책 시급하다 >

<p>일본 워킹푸어 정의와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의 : 일은 하고 있지만 생활보호 수준 정도의 수입으로 경제 생활에 곤란을 겪는 자를 의미</li> <li>▣ 현황 : 일본의 경우, 3인 표준세대의 생활보호비 기준인 연간 소득 200만 엔 미만인 임금 근로자로 정의할 경우, 2008년 전체 임금 근로자 중 26.2%가 워킹푸어로 나타나 전체 취업자 중 1,447만명이 워킹푸어</li> </ul>
<p>워킹푸어 증가의 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 침체에 따른 정규직의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직 근로자는 2000년 4월 대비 2009년 11월 3,190만 명까지 약 300만 명 가량 감소</li> </ul> </li> <li>▣ 비정규직의 급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의 비정규직 비율은 2009년 3/4분기 현재 34.1%로 취업자 3명 당 1명이 비정규직</li> </ul> </li> <li>▣ 기업들의 전반적인 임금 비용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8년 이후 일본에서는 임금 하락이 본격화되었고, 특히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임금이 0.5% 감소</li> </ul> </li> <li>▣ 해외 직접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고용의 해외 유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2004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면서 2000년 315억 달러에서 2008년에는 1,308억 달러까지 급증함</li> </ul> </li> </ul>
<p>일본의 워킹푸어 대책</p>	<p>일본은 늘어나는 워킹푸어에 대한 대책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대책과 빈곤 가계 대책을 동시에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성장분야에 대한 기능습득을 위해 장기 훈련과 IT 기술 훈련 지원</li> <li>☞ 직업 훈련을 집중을 위해 기초적인 생활 보장을 개인에게 지원</li> <li>☞ 현장실습 또는 직장체험이 끝난 훈련생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지원</li> </ul> </li> <li>▣ 빈곤 가계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9년 한시적조치로 고용보험료율을 1.2%에서 0.8%로 인하</li> <li>☞ 주택, 채무, 건강 상담 등을 한 곳에서 '원스톱 서비스'로 받을 수 있도록 헬로워크의 기능을 한층 강화</li> </ul> </li> </ul>
<p>시사점 대응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워킹푸어가 급증하여 2008년 기준 근로자 중 워킹푸어의 비율은 11.6%(약 273만명)로 일본에 비해 낮지만, 2006년, 2007년에 비해서는 높아지는 추세</li> <li>▣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근로소득세액공제 확충 등의 종합적 사회 안전망 구축, 국가고용전략회의 내 '워킹푸어대책반' 설치 등을 통해 워킹푸어 증가에 대비</li> </ul>



1. 일본 워킹푸어(Working Poor) 정의와 규모

○ (워킹푸어의 정의) 일은 하고 있지만 생활보호 수준 정도의 수입으로 경제 생활에 곤란을 겪는 자를 말함

- 워킹푸어의 정의 : 3인표준세대의 생활보호비를 기준으로 연간 소득이 200만 엔 미만인 임금근로자를 워킹푸어(근로빈곤층)로 정의함<sup>1)</sup>

· 2008년 일본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26.2%가 워킹푸어로 나타남

· 동 자료에서 정규직에서는 10.9%가 워킹푸어로 추정되었고, 비정규직의 52.8%가 워킹푸어로 정규직의 5배 가까운 수치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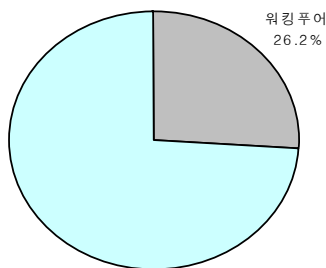
· 또한,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59.6%가 워킹푸어인 것으로 나타남

- 워킹푸어의 규모 추정

· 일본의 2008년 현재 자영업자 및 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취업자 5,524만명 중 1,447만명이 워킹푸어인 것으로 추정됨<sup>2)</sup>

· OECD 분석<sup>3)</sup>에 따르면, 일본의 빈곤층 중에서 워킹푸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넘는데 반해, OECD의 평균은 63%에 불과함

< 임금근로자 중 워킹푸어 비중 >



< 고용형태별 워킹푸어 비중 >

(단위 : %)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고용 형태별 워킹푸어의 비중	10.9	52.8	59.6

자료 : 厚生労働省, '賃金構造基本統計調査', 2008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1) 2007년 후생노동성의 3인표준세대의 최저생계비는 도쿄도를 기준으로 월 167,170엔(연간 200만엔)이나 일률적으로 동일하지는 않고, 세대원 특성, 거주지 등의 특성에 따라 액수가 달라져 통계적 편의상 본 보고서에서는 216만엔 미만으로 추정. 그리고, 빈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浦川邦夫, 'ワーキングプアの拡大に関する考察', 2008.을 참조바람.

2)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 '労働力調査', 労働統計データ検索システム.

3) OECD, *Employment Outlook 2009 - How does JAPAN compare*, 2009.

< 참고 > 일본 및 주요국 워킹푸어(근로빈곤층)의 개념

-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의 워킹푸어 정의는 취업자이면서 상대적 혹은 절대적 빈곤선 이하로 정의하고 있음
  - 일본에서의 워킹푸어에 대한 기존 연구
    - 연합종합생활개발연구소4)에 따르면, 연간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층을 근로빈곤층(워킹푸어)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단신세대 186.3만 엔, 3인 표준세대 294.7만엔 이하의 소득층을 말함
    - 이에 따르면, 2002년 생산가능인구를 기준으로 3인 표준세대의 워킹푸어는 2,440만명으로 전체 고용자의 47.1%를 점하고 있음
    - 고토(後藤道夫)에 따르면5), 빈곤기준으로 세대인원별로 계산된 최저생활비를 이용하여 빈곤세대수를 추산하고 있으며, 2007년의 근로세대 중 워킹푸어는 20% 전후로 추정하고 있음

< 주요국에서의 근로빈곤층 개념 >

	기관/자료	대상 범위	빈곤선(Poverty Line)
E U	- Eurostat	- 주당 15시간 이상 피고용자	- 저소득기준선:중위소득 60%미만
프랑스	- 통계청(INSEE) - 일반연구자 - NASI	- 6개월 이상 구직/취업자 - 연간 1월 이상 취업자	- 저소득기준선:중위소득 50%미만(때로 60~70%)
벨기에	- NASI	- 연간 6월 이상 구직/취업자	- 저소득기준선:중위소득 60%미만(상대소득빈곤)
미 국	- 노동 통계청(BLS)	- 연간 6월(27주) 이상 구직/취업자	- 미 연방빈곤선(FPL)
캐나다	- 복지평의회(NCW)	- 임금이나 자영소득이 총 가구소득의 50%이상 세대	- 캐나다통계청이 정한 빈곤선
	- 정책연구네트워크(CPRN)	- 전일제(full time) 근로자	- 상대적 저소득기준선 :연간 캐나다달러 2만불 미만
일 본	- 연합종합생활 개발연구소	- 일본의취업구조기본통계조사에 따른 고용자	- 상대적 저소득기준선 :표준세대(3인) 186.3만엔이하

자료 :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Working poor in the European Union*, 2006. 및 連合總合生活開發研究所(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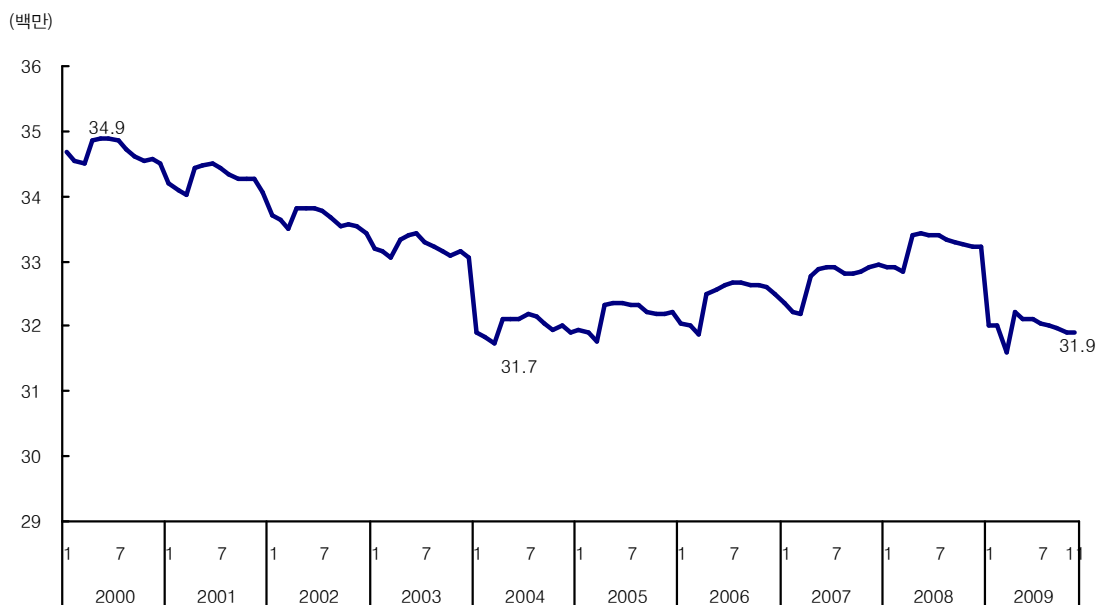
4) 連合總合生活開發研究所, '公正で健全な經濟社會への道', 連合總研レポート, No.210, 2006.

5) 後藤道夫, 'ワーキングプアの急増と最低生活保障', NIRA政策レビュー-No.24, 2008.

## 2. 워킹 푸어 증가의 배경

- (경기 침체에 따른 정규직 증가율 하락) 일본 경기는 글로벌 경제 위기 이전부터 침체가 시작되면서 정규직 증가율 감소가 지속
  - 일본의 경기는 2005년 4/4분기부터 악화되기 시작하여,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일어나기 이전부터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
    - 일본은 2005년 3/4분기까지 잃어버린 15년에서 벗어나 경기가 되살아났으나, 금융위기 발생하기 3년 전부터 저성장이 이어짐
    - 2008년에 들어 2/4분기부터 2009년 1/4분기까지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되었으며 최근 2009년 3/4분기까지 1% 성장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따라 1983년에서 1994년까지 2%대의 실업률을 보였던 실업률은 2002년 5.4%까지 상승했으며 2009년 9월 5.5%로 최고치 기록
  - 일본 정규직의 경우, 2000년 4월 3,486만 명 이후, 감소경향을 보이기 시작하여 2009년 11월 말 3,190만 명까지 하락
    - 전년동월대비 증감의 경우, 2009년 1월 -91만명으로 감소한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어 11월 -135만명까지 줄어듦

< 일본의 정규직 고용자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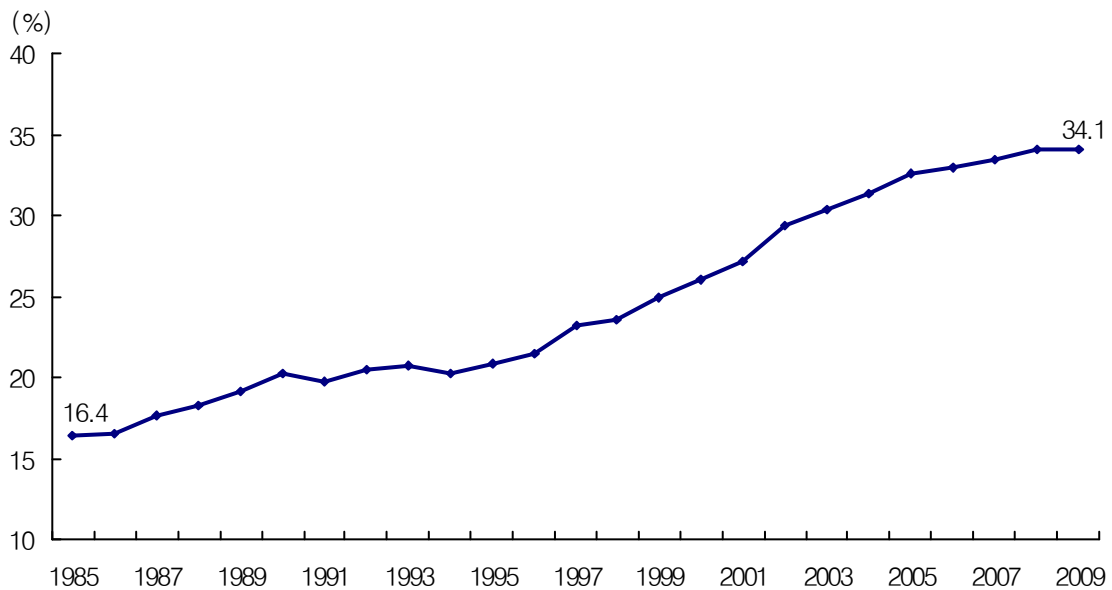


자료 : Reuters.

○ (비정규직의 급증) 기업들이 경비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의 채용을 확대하고 있음

- 경제가 저성장을 지속하게 되자 경비 절감과 고용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일본 기업들은 비정규직을 증가시킴
  - 일본의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의 2005년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채용의 원인은 '노동비용 삭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경력직원의 확보', '정사원의 부담감' 등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일본의 비정규직 비율은 1985년 16.4%에 불과하던 것이 1990년 20%대로 진입하였으며, 2009년 3/4분기 평균 34.1%까지 증가
  - 이에 따라 고용된 취업자 중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임
- 한편, 총무성 통계국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비정규직 비율은 음식점·숙박업이 62.7%로 가장 높고, 서비스업 45.3%, 도소매업 44.2% 순으로 나타남

< 비정규직 비율 추이 >



자료 : 總務省統計局 「勞働力調査特別調査」、 「勞働力調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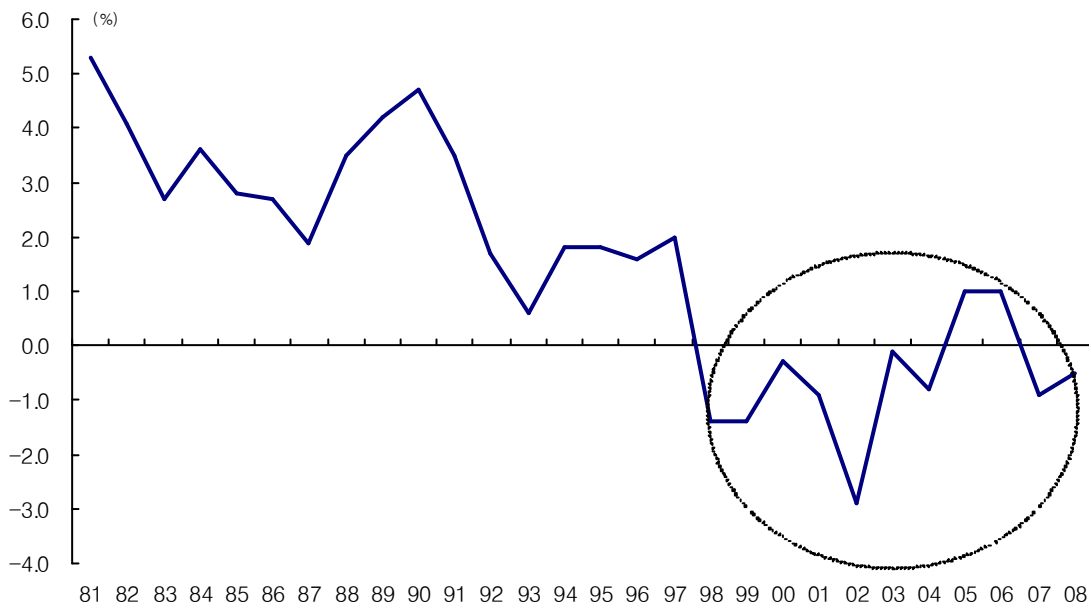
주 : 1985-2001년까지는 매년 2월 기준이며, 2002년부터는 연평균임. 단, 2009년은 3/4분기 평균임.



○ (임금 하락) 기업들이 임금 비용을 축소시킴으로써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중위 소득층이 감소하는 현상으로 이어짐

- 1998년 이후 일본에서는 임금 하락이 본격화되어 2005년, 2006년을 제외하고 하락세를 보임
  - 1980년대(81-90년) 연평균 임금 상승률은 3.6%였으나, 버블 붕괴 이후 90년대(91-00) 1.0%로 급감하였음
  - 특히, 2000년대(2001-08)에는 -0.5%로 임금이 하락함
- 이에 따라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중위 소득층이 감소하는 현상을 초래
  - 1998년 이후 2008년 사이 연 소득 200만에 이하의 저소득층은 793만 명에서 1,068만 명으로 증가
  - 반면, 같은 기간 연 소득 400만엔에서 600만엔의 중위 소득자는 1,138만명에서 1,065만 명으로 73만 명 감소

< 연평균 임금 상승률 추이 >



자료 : 厚生労働省 「毎月勤勞統計調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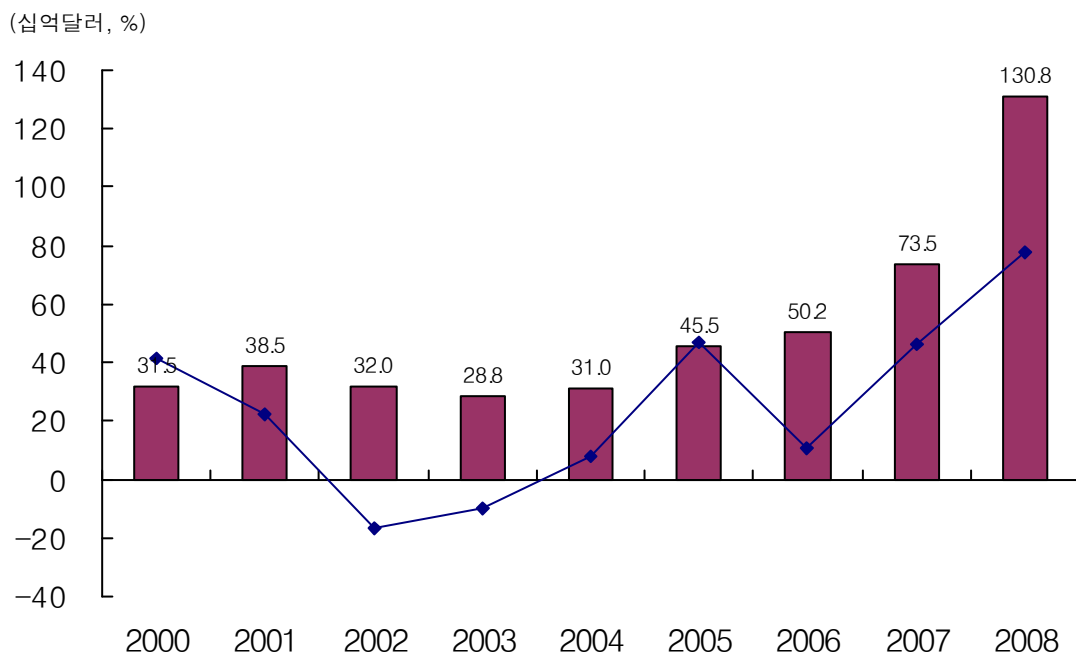
주 : 1) 3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함

2) 연평균 임금 상승률은 연간 현금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함.

○ (국내 고용의 해외 유출)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 해외 시장 판로 개척 등의 이유로 해외 투자를 증가시킴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

- 2000년대 이후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를 살펴보면, 2004년 이후 해외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 금액 기준으로 보면, 2003년까지 줄어들던 해외직접투자는 2004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2008년 1,308억 달러까지 증가
  - 직접투자 증가율을 보더라도 2006년 10.3%, 2007년 46.5%, 2008년 78.0%로 증가 속도가 최근 들어 빨라지고 있음
- 인건비 상승과 해외 시장 판로 개척을 이유로 일본 기업은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전략을 택함
  - 일본의 제조업 기업은 생산 및 조립 기능을 해외로 이전함으로써 글로벌 공급사슬 체계를 구축하여 비용구조 개선에 따른 경쟁력 제고
  - 이에 따라 일본 대표기업인 혼다, 도요타, 도시바 등은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 등으로 생산기지를 이전

<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



자료 : 일본무역진흥기구..

### 3. 일본의 '워킹푸어' 대책

- 최근 일본 정부의 워킹푸어 대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대책과 저소득 가계에 대한 빈곤대책을 통해 근로빈곤층 확산을 방지하고 있음
-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대책) 일본의 2009년 7월 '긴급인재육성 및 취직지원 기금'을 확대하여 직업훈련, 훈련기간 중 생활보장, 실습형 및 직장체험 지원을 통한 고용창출
  - 첫째, 직업훈련의 확충
    - 의료, 돌보미, 복지 등 신성장분야에 대한 기본능력 습득을 위한 장기 훈련
    - 재취업에 필수인 IT기술 훈련
  - 둘째, 훈련기간 중 생활보장
    - 훈련생이 단신세대인 경우 월 10만 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월 12만 엔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최대 8만 엔까지 추가적으로 대부해 줌
  - 셋째, 현장실습 및 직장체험 후 채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 충분한 경험이 없는 현장실습형 구직자를 고용한 경우 1인당 월 10만 엔을 중소기업에 지원
    - 돌보미 등의 분야에 있어서 직장체험을 마친 구직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1인당 월 10만 엔을 지원

< 긴급인재육성·취직지원기금 주요 내용 >

	내용	대상자수	사업규모
직업훈련 확충	- 직업훈련의 확충 · 의료, 돌보미, 복지 등 신성장분야에 대한 기본능력 습득을 위한 장기 훈련 · 재취업에 필수인 IT기술 훈련	35만명	4,820억엔
훈련기간 중 생활보장	- 훈련기간 중 생활보장 · 훈련생이 단신세대인 경우 월 10만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월 12만엔 지원 · 필요한 경우 최대 8만엔까지 추가적으로 대부	30만명	
중소기업 등의 고용창출	- 실습형 고용에 대한 지원 · 충분한 경험이 없는 구직자를 현장실습형으로 고용한 경우 1인당 월 10만엔을 중소기업에 지원	7만명	1,620억엔
	- 직장체험을 통한 고용에 대한 지원 · 돌보미 등의 분야에 있어서 직장체험을 통해 구직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1인당 월 10만엔 지원	2만명	

자료 : 厚生労働省

- (빈곤 가계 지원 대책) 빈곤 근로자에게 소득을 보전하는 정책과 헬로워크 기능 확대를 통해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주력함
  - 첫째, 빈곤 근로자의 생활 지원을 위한 소득 보조
    -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 감소를 겪고 있는 저소득 가계의 지원을 위해 생활지원금 지급과 감세 조치를 통해 빈곤 대책을 수립
    - 2008년 10월 일본정부는 한시 조치로 총액 2조엔에 달하는 생활지원금을 직접 지급
    - 또한, 일본정부는 경제계에 임금인상을 요청하는 한편, 1.2%의 고용보험요율을 0.4%p 인하한 0.8%로 노사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한시적 조치로 고용보험료를 인하함
    - 2009년 경제재정백서에서 미국의 근로소득세액공제(EITC)를 도입을 위해 제도설계 및 재원확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
  - 둘째, 주거와 생활지원 조안자를 확충하는 등 헬로워크(Hello Work)의 기능 강화
    - 특히, 2009년 12월 헬로워크에서 '원스톱 서비스' 실시하여 취업상담, 주택수당, 생활보호 등 각종 제도에 대한 상담이 한 곳에서 행해짐
    - 본 사업을 통해 2009년 11월말 현재 일본 전국 77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2,404명이 이용함
- ('고용조정지원금' 확대) 경기변동 등 경제적 이유로 사업을 축소한 사업자가 휴업이나 교육훈련 또는 자회사 파견 등에 의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그로 인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확대함
  -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 감소를 겪고 있는 저소득 가계의 지원을 위해 생활지원금 지급과 감세 조치를 통해 빈곤 대책을 수립
    - 일본 정부는 2009년 12월 고용대책에서 '고용조정 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여 추가적인 고용 악화를 방지하는데 노력함
    -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외에도 교육훈련비를 지급. 1인당 하루에 대기업은 4,000엔, 중소기업은 6,000엔 지급
    - 본 대책을 통해서 2008년 4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약 53만개 기업의 1,577만 명이 혜택 받음

#### 4. 대응 과제

- (국내 워킹푸어 증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워킹푸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8년 기준 워킹푸어의 숫자는 총 취업자 2,357만 명 중 273만 명인 것으로 추정됨
    - 일본의 정의와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2008년 3인 기준 최저생계비인 102만 6,603 원 이하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비율은 11.6%로 일본에 비해 낮지만, 2006년, 2007년에 비해서는 높아지는 추세임
  -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는 줄면서 임시직 중심의 고용이 증가함으로써 워킹푸어가 증가하고 있는 것임
    -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 단기 일자리 등을 통해 급격한 고용 악화는 방지
    - 그러나 2007년 비정규직 비율이 35.9%에서 2008년 33.8%로 감소하였다가 2009년 34.9%로 다시 증가함
- (정부 워킹푸어 대책 추진)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력 제고, 종합적 사회 안전망 구축, '워킹푸어대책반' 설치 등을 통해 워킹푸어가 증가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첫째, 새로운 성장이 기대되는 중점 분야에서의 고용 창출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할 것임
  - 둘째, 장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소홀해지기 쉬운 저소득 계층의 근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및 훈련비 지원, 근로소득세액공제 확충 등을 통해 종합적 사회 안전망 구축
  - 셋째, 대통령 주재 매월 1회 이상 운영하기로 한 국가고용전략회의 내 '워킹푸어대책반'을 설치하여 근로빈곤층에 대한 대책을 수립

현석원 연구위원(3669-4024, kyotohyun@hri.co.kr)

정유훈 선임연구원(3669-4014, youhun@hri.co.kr)



주요 국내의 경제지표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07 년	2008 년	2009년				2009년			2009 (E)
			1/4	2/4	3/4	4/4	1/4	2/4	3/4	
미국	2.1	0.4	-0.7	1.5	-2.7	-5.4	-6.4	-0.7	2.2	-2.7
EU	2.7	0.7	0.7	-0.3	-0.4	-1.9	-2.5	-0.1	0.4	-4.2
일본	2.3	-0.7	5.6	-8.1	-4.0	-10.2	-11.9	2.7	1.3	-5.4
중국	13.0	9.0	10.6	10.1	9.0	6.8	6.1	7.9	8.9	8.5
한국	5.1	2.2	5.5	4.3	3.1	-3.4	-4.2	-2.2	0.9	0.2

주 1) : 2008, 2009년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잠정치(P), 2009년 전망치(E)는 IMF 2009년 10월 기준임. 한국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2) :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08년 말	2009년		2010년		
			6월말	12월말	1월8일	1월15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2.21	3.54	3.83	3.83	3.74	-0.09%p
	엔/달러	90.80	96.33	92.93	92.56	91.21	-1.35¥
	달러/유로	1.3992	1.4039	1.4332	1.4418	1.4501	0.0083\$
	다우존스지수	8,776	8,447	10,428	10,618	10,711	93p
	닛케이지수	8,860	9,958	10,655	10,682	10,908	226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41	4.16	4.41	4.36	4.22	-0.14%p
	원/달러	1,259.5	1,273.9	1,164.5	1,130.5	1,123.0	-7.5원
	코스피지수	1,124.5	1,390.1	1,682.8	1,695.3	1,701.8	6.5p

주 : 1월 15일 해외 지표는 전일(1월 14일) 기준임.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08년 말	2009년		2010년		
			6월말	12월말	1월8일	1월15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44.61	69.08	79.35	82.85	79.35	-3.50\$
	Dubai	36.45	71.85	78.06	80.34	78.45	-1.89\$
CRB선물지수		229.54	249.96	283.38	290.77	284.43	-6.34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